

#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2005~2020년,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통해서 본 한국

시민사회 지형 변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2020년 6월

# 연구 배경과 목적

Civil society refers to the arena of uncoerced collective action around shared interests, purposes and values. In theory, its institutional forms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state, family and market, though in practice, the boundaries between state, civil society, family and market are often complex, blurred and negotiated. Civil society commonly embraces a diversity of spaces, actors and institutional forms, varying in their degree of formality, autonomy and power. Civil societies are often populated by organizations such as registered charities, develop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women's organizations, faith-based organizations, professional associations, trade unions, self-help groups, social movements, business associations, coalitions and advocacy groups (from *Centre for Civil Socie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 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0년대 후반 억압적 국가에 대항하여 조직되면서 국가와 **시장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량을 갖추었지만, 저항적 엘리트 중심 주요 조직이 제도권 정치에 침윤됨으로써 역할의 한계가 노정된 상태
- 특히 시민사회와 정부(행정부, 입법부, 정당)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시민사회 출신 정치인들은 가시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시민사회의 제도권 감시와 견제 기능은 쇠퇴(김석호 2016)
- 이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송호근 2016) 중심의 시민사회의 한계 또는 시민사회 미성숙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민주주의도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됨(최장집, 2010)

# 연구 배경과 목적

- 사실 시민사회를 시민단체 중심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며 시민사회 개념의 본령에 충실했을 때 시민사회의 범위는 조직화된 소수의 시민단체 그 이상을 의미
- 19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시민사회를 자발적인 결사체들을 통해 새롭게 실현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입에 대한 방어하는 공간으로 인식
- 자발적 결사체는 다양한 정치적, 비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나, 그 유형에 관계없이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SKOCPOL 2004)
- 자발적 결사체의 진정한 가치는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적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진보와 혁신을 창출하고 시민이 시민성을 함양하고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 있음(Fung 2003)

# 연구 배경과 목적

- 시민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 목적, 가치 등을 둘러싼 자발적 의지를 가진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 했을 때, 자발적 결사체는 정부, 시장, 일차적 가족관계와 독립적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사회는 비정치적인 기관들이 활동하는 전체 사회의 한 부분이며 자발적이고 자유가 보장된(voluntary and free) 모든 형태의 결사체로 구성됨
-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지형을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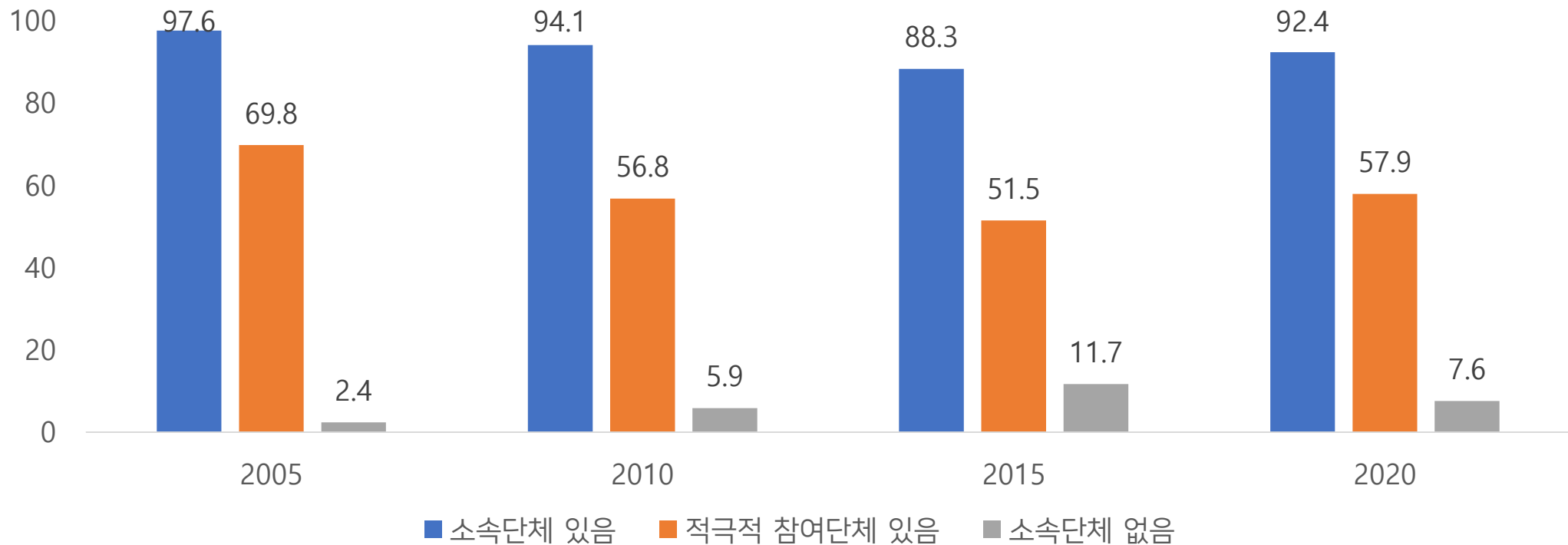
- Latent Class Analysis를 통해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가입 패턴 분석
- Two mode social networks analysis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자발적 결사체들의 연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

# 분석 결과

- 2005년, 2010년, 2015, 2020년의 자발적 결사체 소속여부

(종친회/향우회, 동창회, 취미/문화/학술모임, 계와 같은 상부상조모임, 정당과 정치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자선/봉사모임,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종교모임)

➔ 자발적 결사체 참여비율의 하락 후 2020년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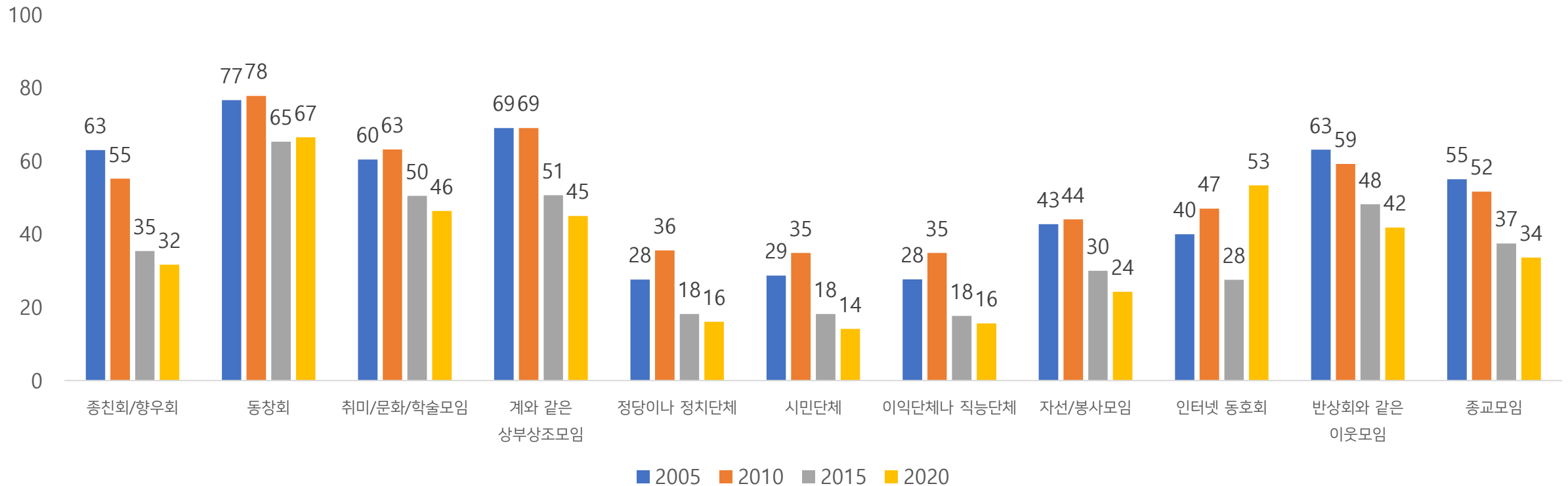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실태

•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의 자발적 결사체 단체별 소속비율

➔ 2020년 기준, 참여율 높은 자발적 결사체: 동창회, 계와 같은 상부상조모임, 취미/문화/학술모임,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등

➔ 2005년과 비교해 2020년에 참여가 증가한 결사체는 인터넷 동호회가 유일





# 1.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실태

- 2005년 자발적 결사체별 소속유무

	단순참가자		적극참가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종친회/향우회	639	63.0	167	16.5	1014	100.0
동창회	775	76.7	231	22.8	1011	100.0
취미/문화/학술모임	614	60.4	263	25.9	1016	100.0
계와 같은 상부상조모임	700	69.0	339	33.4	1014	100.0
정당이나 정치단체	273	27.6	31	3.1	988	100.0
시민단체	284	28.7	45	4.6	989	100.0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273	27.7	29	2.9	986	100.0
자선/봉사모임	431	42.8	126	12.5	1008	100.0
인터넷 동호회	400	40.0	100	10.0	1000	100.0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636	63.1	164	16.3	1008	100.0
종교모임	556	55.0	245	24.3	1010	100.0

# 1.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실태

- 2010년 자발적 결사체별 소속유무

	단순참가자		적극참가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종친회/향우회	558	55.2	128	12.7	1,011	100.0
동창회	790	77.8	258	25.4	1,015	100.0
취미/문화/학술모임	642	63.2	174	17.1	1,016	100.0
계와 같은 상부상조모임	703	69.1	239	23.5	1,018	100.0
정당이나 정치단체	360	35.6	25	2.5	1,012	100.0
시민단체	353	34.9	26	2.6	1,011	100.0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352	34.9	11	1.1	1,009	100.0
자선/봉사모임	446	44.1	54	5.3	1,012	100.0
인터넷 동호회	472	47.0	77	7.7	1,004	100.0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598	59.2	124	12.3	1,010	100.0
종교모임	519	51.6	144	14.3	1,005	100.0

# 1.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실태

- 2015년 자발적 결사체별 소속유무

	단순참가자		적극참가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종친회/향우회	356	35.4	81	8.1	1,006	100.0
동창회	657	65.3	211	21.0	1,006	100.0
취미/문화/학술모임	508	50.5	179	17.8	1,006	100.0
계와 같은 상부상조모임	510	50.7	201	20.0	1,006	100.0
정당이나 정치단체	183	18.2	25	2.5	1,006	100.0
시민단체	183	18.2	25	2.5	1,006	100.0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178	17.7	26	2.6	1,006	100.0
자선/봉사모임	302	30.0	86	8.5	1,006	100.0
인터넷 동호회	277	27.5	51	5.1	1,006	100.0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485	48.2	154	15.3	1,006	100.0
종교모임	377	37.5	153	15.2	1,006	100.0

# 1.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실태

- 2020년 자발적 결사체별 소속유무

	단순참가자		적극참가자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종친회/향우회	318	31.7	74	7.4	1,003	100.0
동창회	667	66.5	206	20.5	1,003	100.0
취미/문화/학술모임	464	46.4	177	17.7	1,000	100.0
계와 같은 상부상조모임	451	45.0	207	20.7	1,002	100.0
정당이나 정치단체	161	16.1	17	1.7	1,001	100.0
시민단체	141	14.1	11	1.1	999	100.0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156	15.6	18	1.8	997	100.0
자선/봉사모임	242	24.3	53	5.3	997	100.0
인터넷 동호회	535	53.4	191	19.1	1,002	100.0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417	41.8	113	11.3	997	100.0
종교모임	337	33.6	144	14.4	1,0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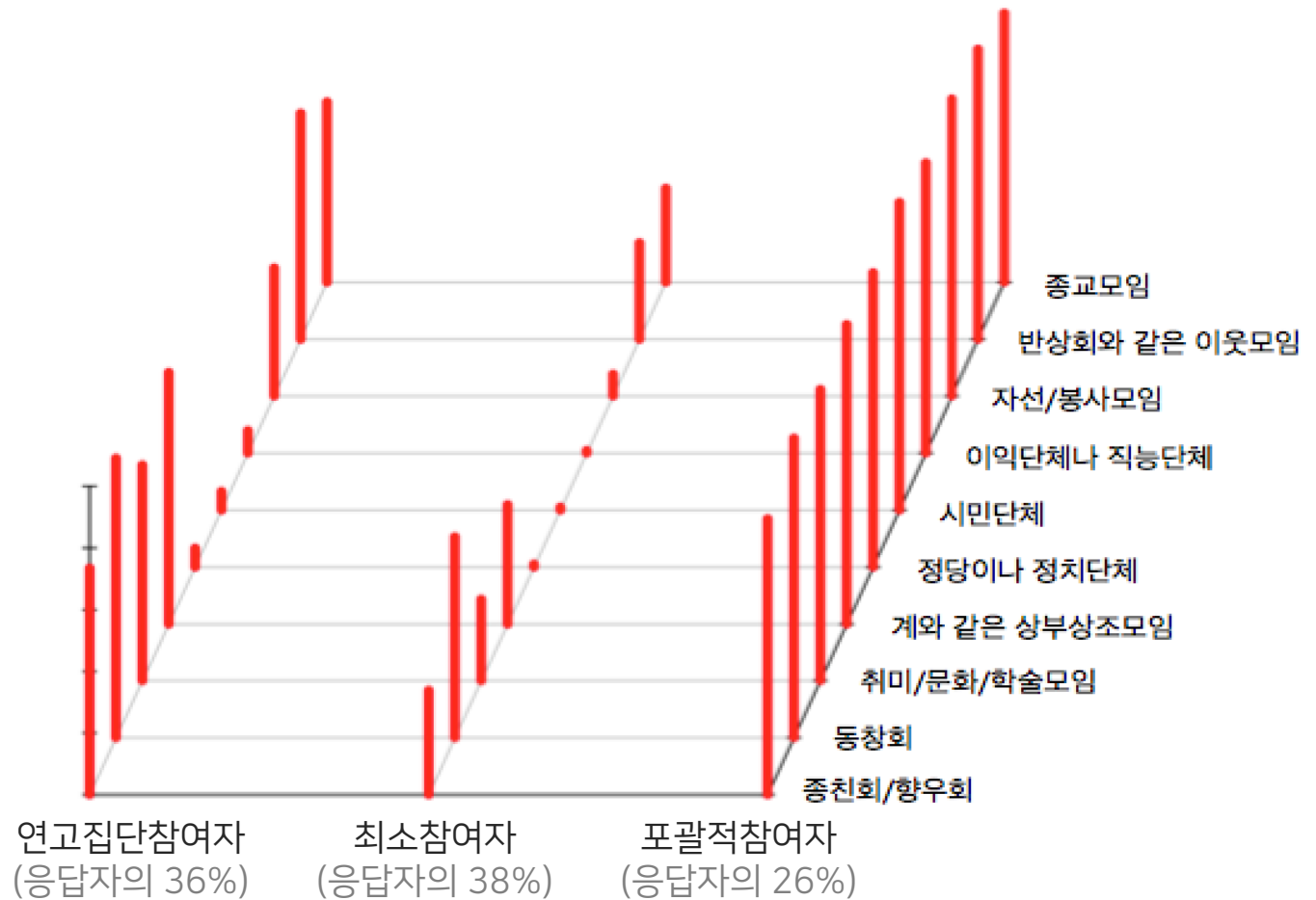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잠재적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 2005년 자발적 결사체 참여 구분

→ 연고집단참여자(응답자의 36%)

→ 최소 참여자(응답자의 38%)

→ 포괄적 참여자(응답자의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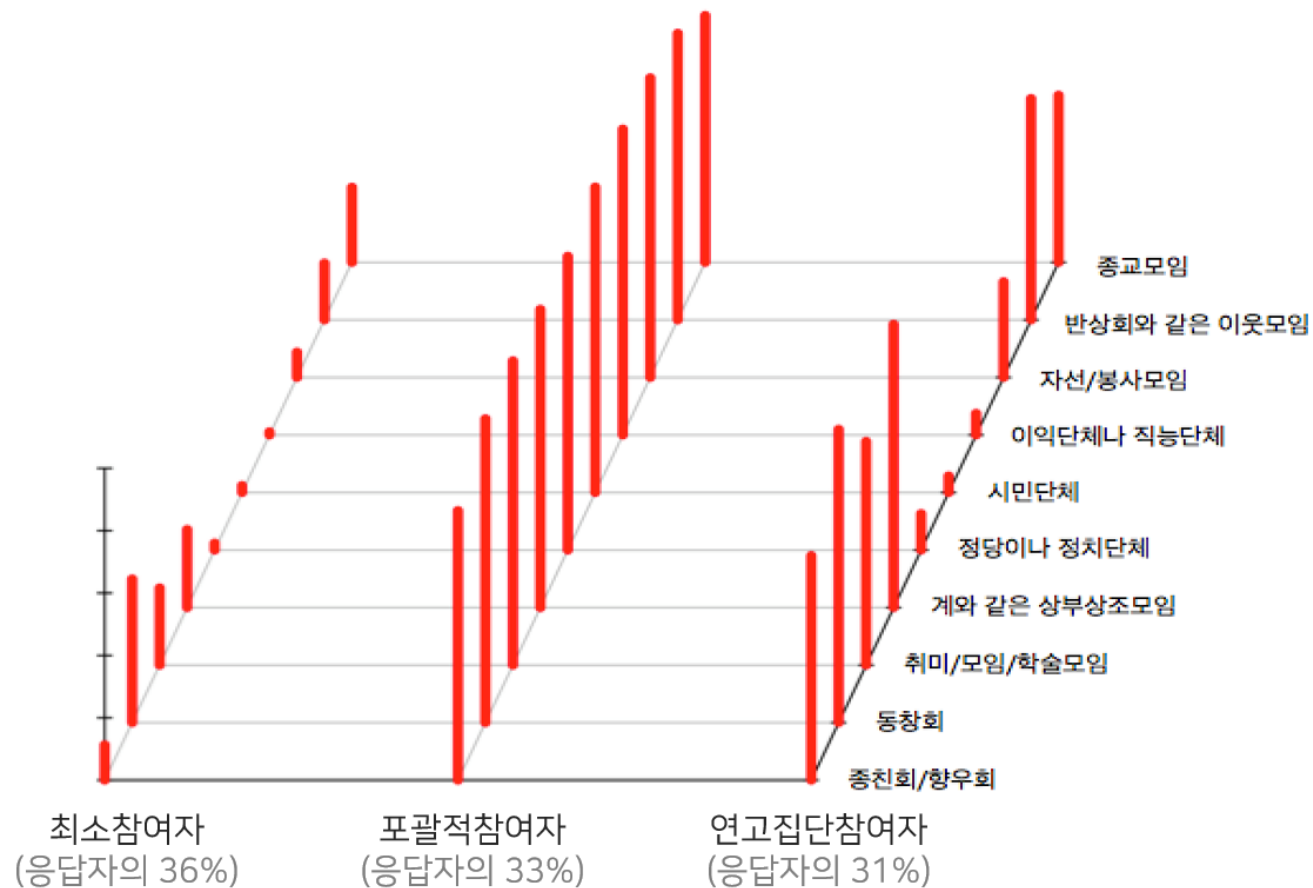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잠재적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 2010년 자발적 결사체 참여 구분

→ 최소 참여자(응답자의 36%)

→ 포괄적 참여자(응답자의 33%)

→ 연고중심 참여자(응답자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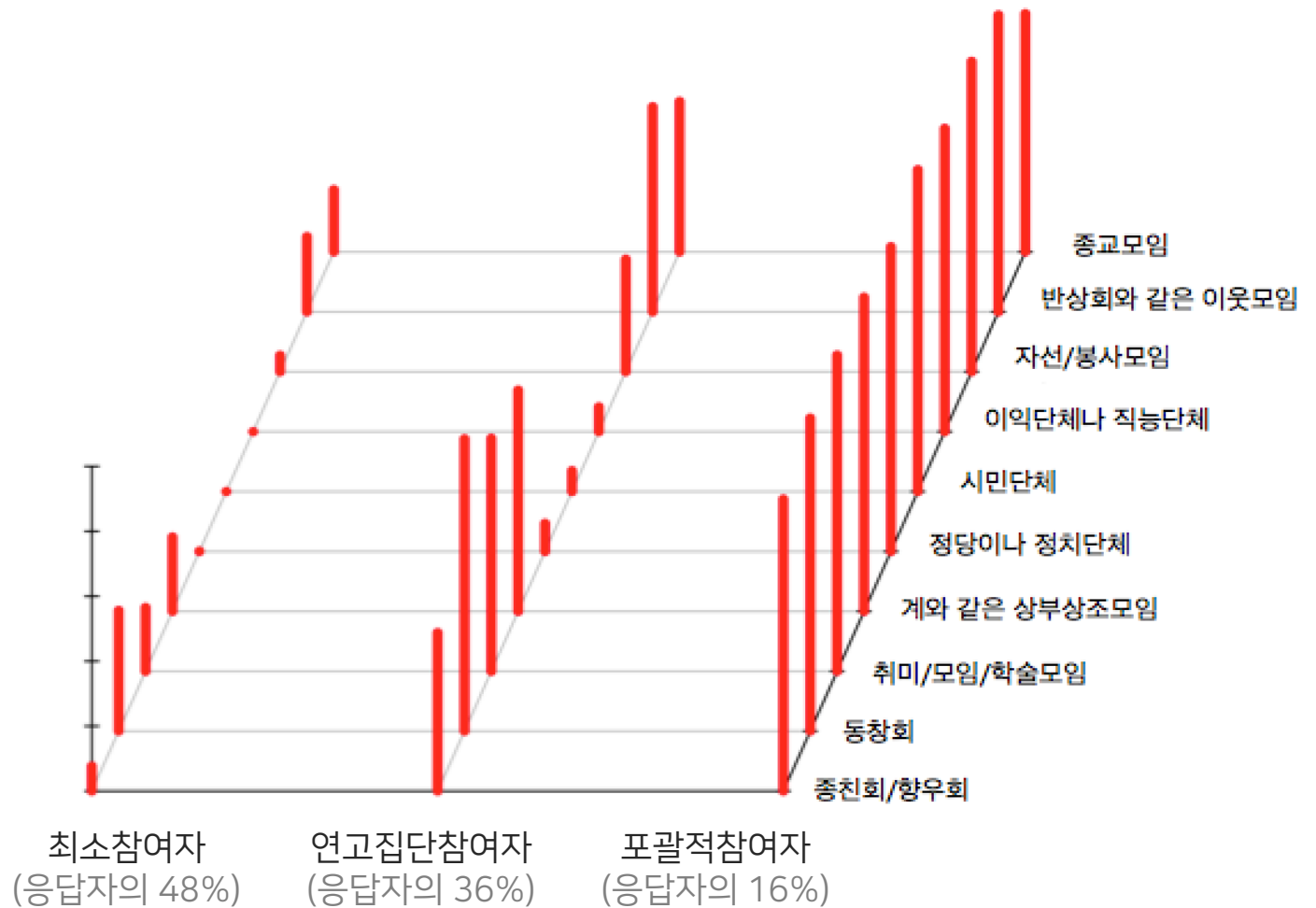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잠재적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 2015년 자발적 결사체 참여 구분

➔ 최소 참여자(응답자의 48%)

➔ 연고집단 참여자(응답자의 36%)

➔ 포괄적 참여자(응답자의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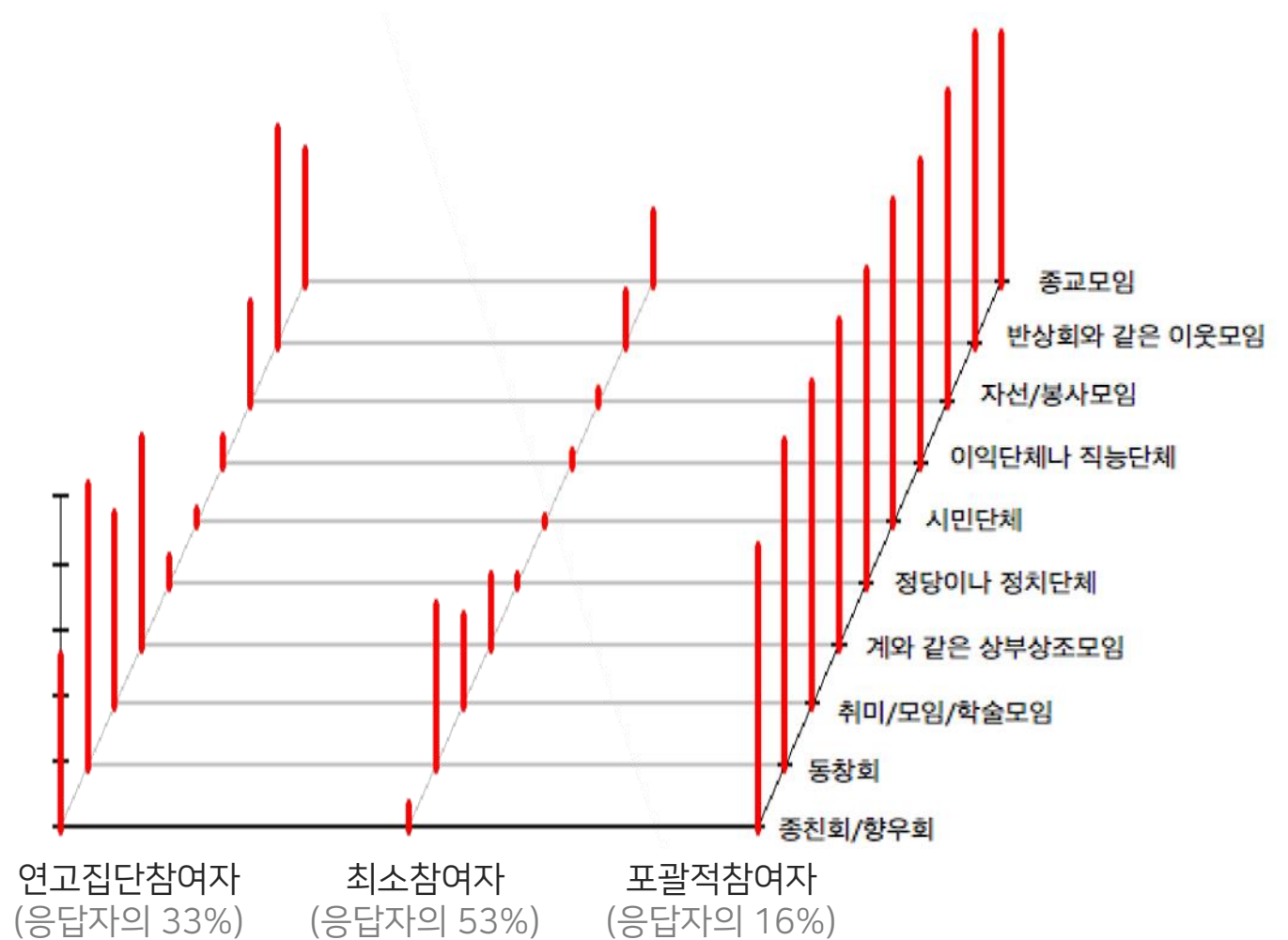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자발적 결사체 참여 잠재적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 2020년 자발적 결사체 참여 구분

→ 최소 참여자(응답자의 53%)

→ 연고집단 참여자(응답자의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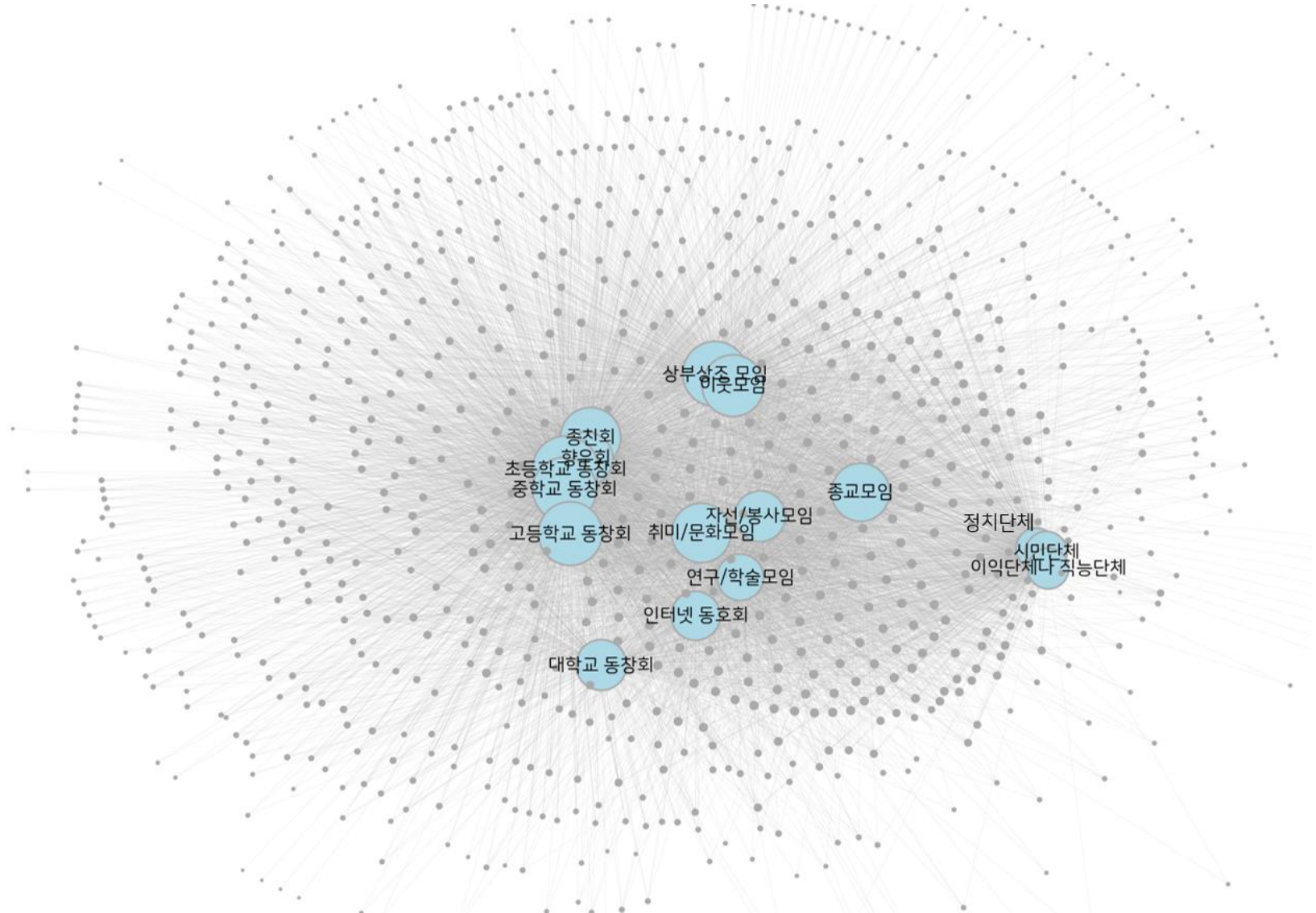
→ 포괄적 참여자(응답자의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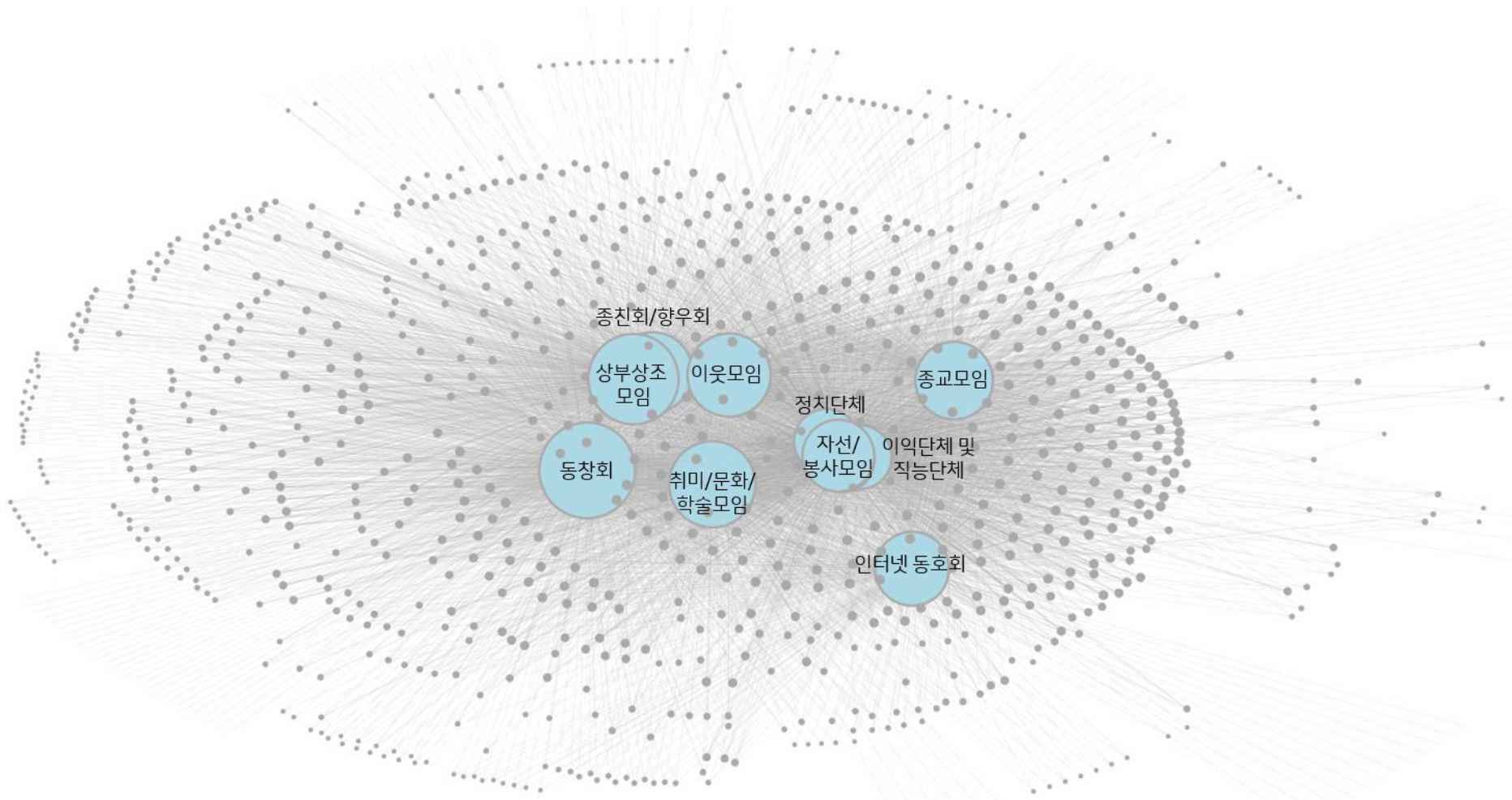
# 2005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소속됨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	611	58.9
향우회	486	46.8
초등학교 동창회	736	70.9
중학교 동창회	679	65.4
고등학교 동창회	674	64.9
대학교 동창회	420	40.5
취미/문화모임	598	57.6
연구/학술모임	355	34.2
계와 같은 상부상조 모임	700	67.4
정당이나 정치단체	273	26.3
시민단체	284	27.4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273	26.3
자선/봉사모임	431	41.5
인터넷 동호회	400	38.5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636	61.3
종교모임	556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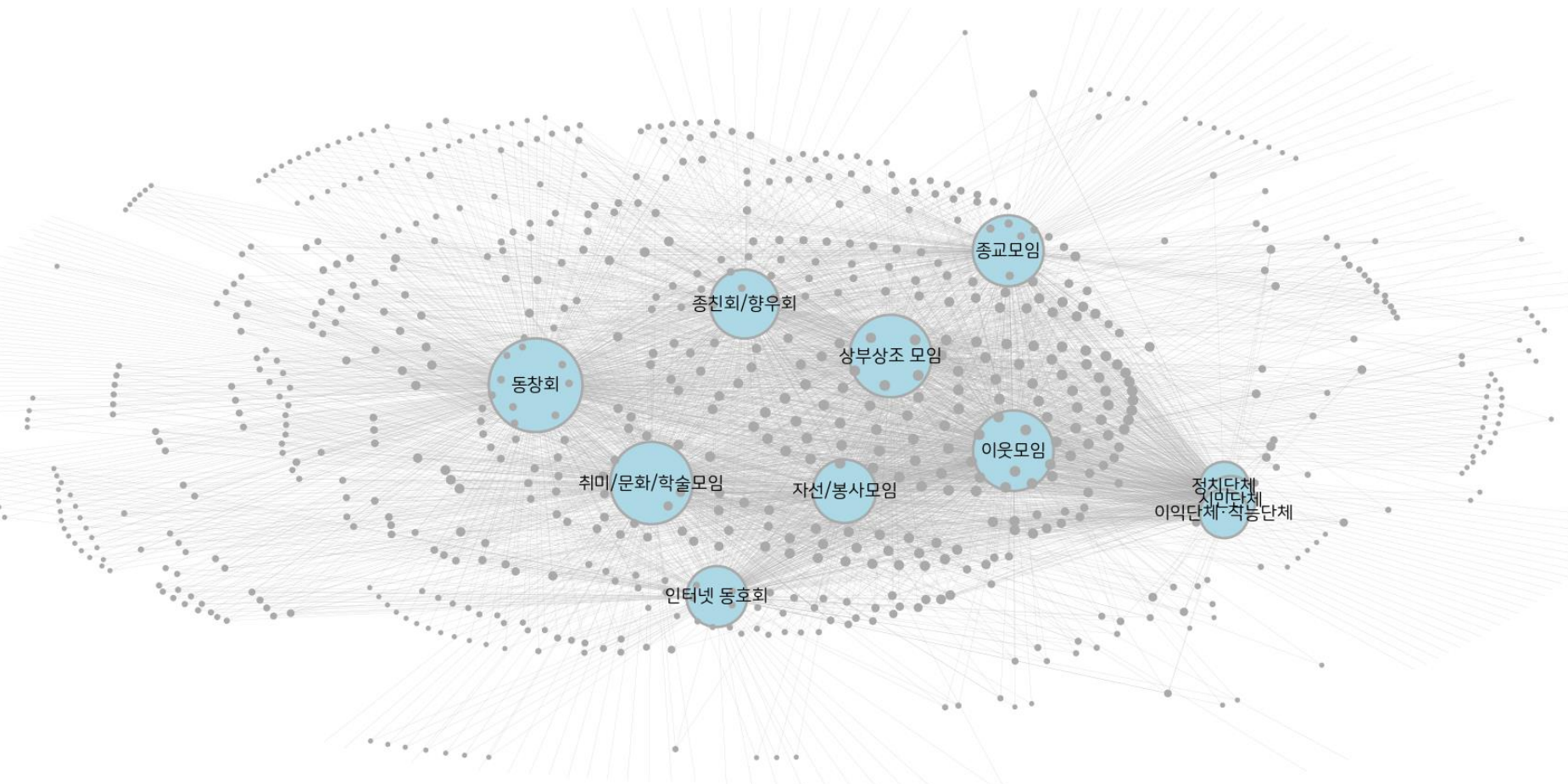
# 2010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소속됨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향우회	558	55.2
동창회	790	77.8
취미/문화/학술모임	642	63.2
상부상조 모임	703	69.1
정당이나 정치단체	360	35.6
시민단체	353	34.9
이익단체 및 직능단체	352	34.9
자선/봉사모임	446	44.1
인터넷 동호회	472	47.0
이웃모임	598	59.2
종교모임	519	51.6



# 2015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소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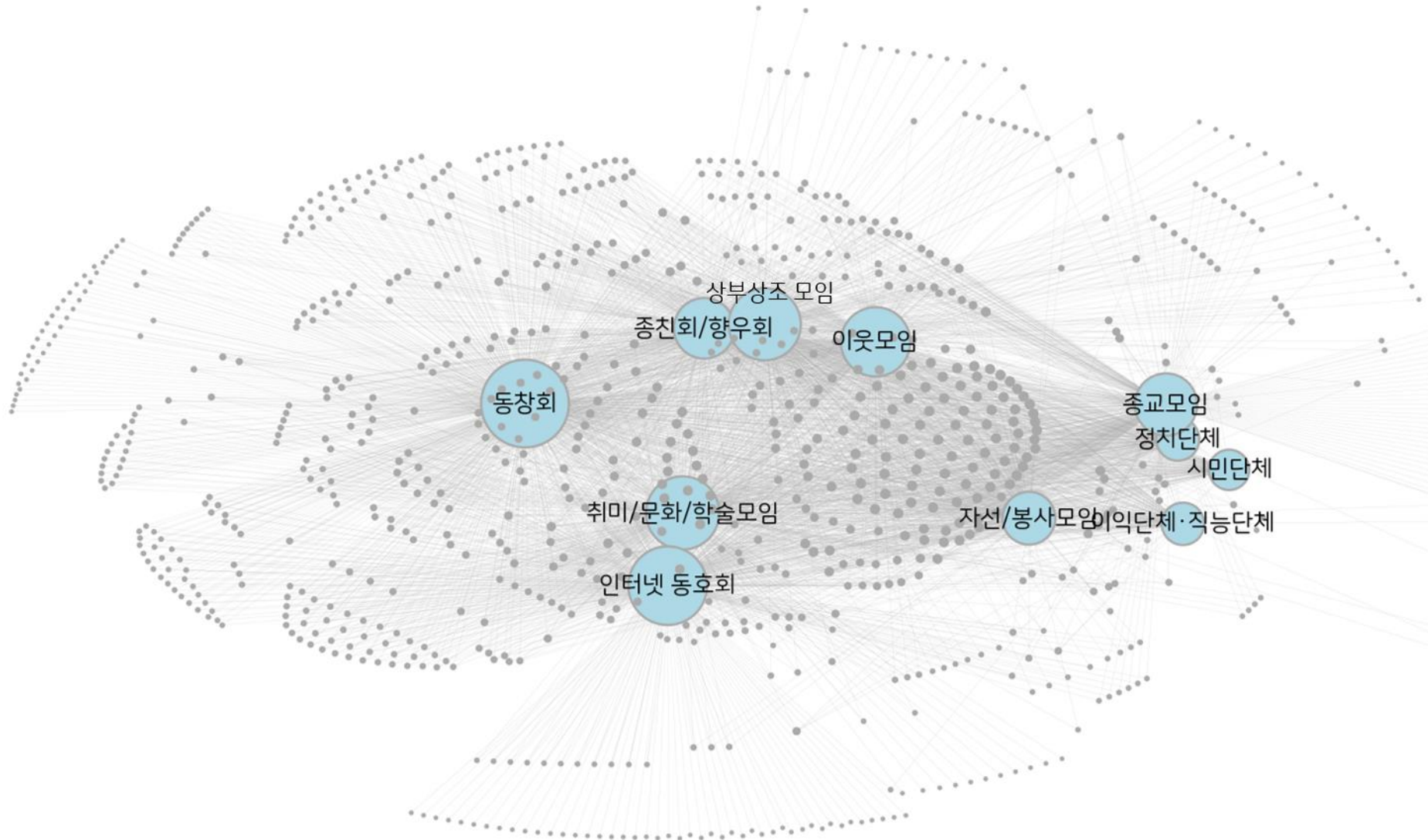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향우회	356	35.4
동창회	657	65.3
취미/문화/학술모임	508	50.5
상부상조 모임	510	50.7
정당이나 정치단체	183	18.2
시민단체	183	18.2
이익단체 및 직능단체	178	17.7
자선/봉사모임	302	30.0
인터넷 동호회	277	27.5
이웃모임	485	48.2
종교모임	377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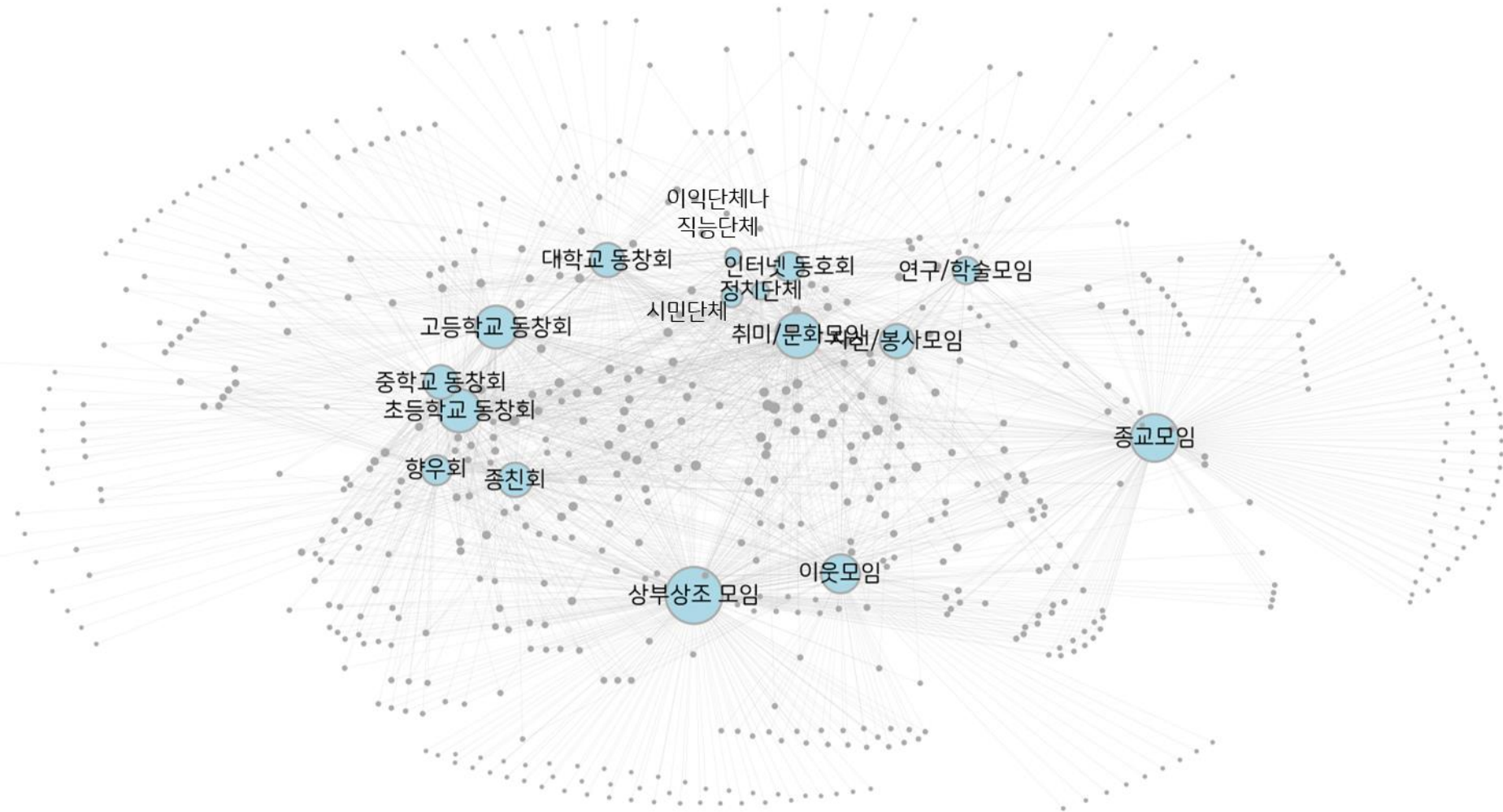
# 2020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소속됨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향우회	318	31.7
동창회	667	66.5
취미/문화/학술모임	464	46.3
상부상조 모임	451	45.0
정당이나 정치단체	161	16.1
시민단체	141	14.1
이익단체 및 직능단체	156	15.6
자선/봉사모임	242	24.1
인터넷 동호회	535	53.3
이웃모임	417	51.6
종교모임	337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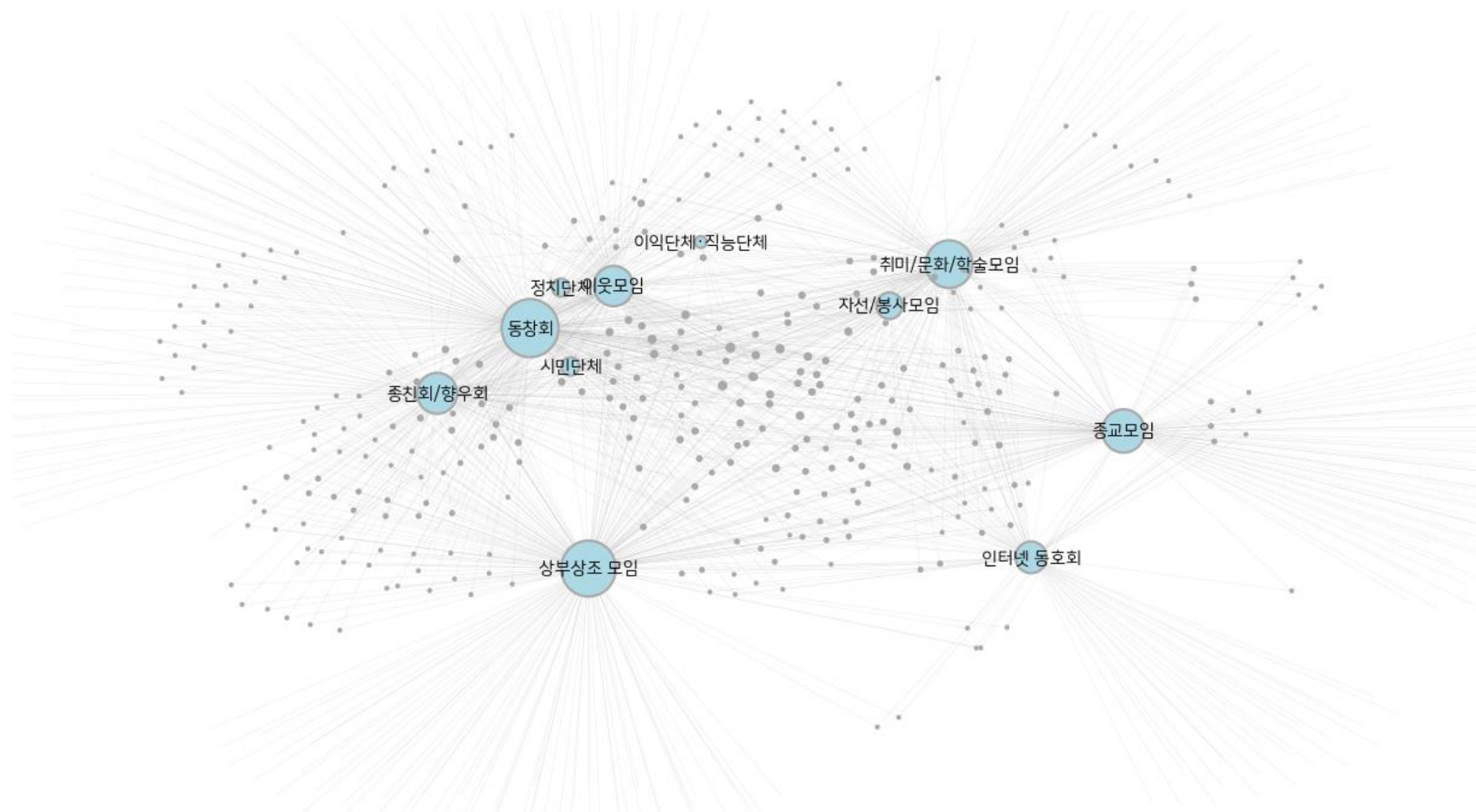
# 2005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활발하게 참여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	129	12.8
향우회	101	10.1
초등학교 동창회	205	20.3
중학교 동창회	128	12.7
고등학교 동창회	198	19.7
대학교 동창회	127	13.0
취미/문화모임	233	22.9
연구/학술모임	78	7.9
계와 같은 상부상조 모임	339	33.4
정당이나 정치단체	31	3.1
시민단체	45	4.6
이익단체나 직능단체	29	2.9
자선/봉사모임	126	12.5
인터넷 동호회	100	10.0
반상회와 같은 이웃모임	164	16.3
종교모임	245	24.3



# 2010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활발하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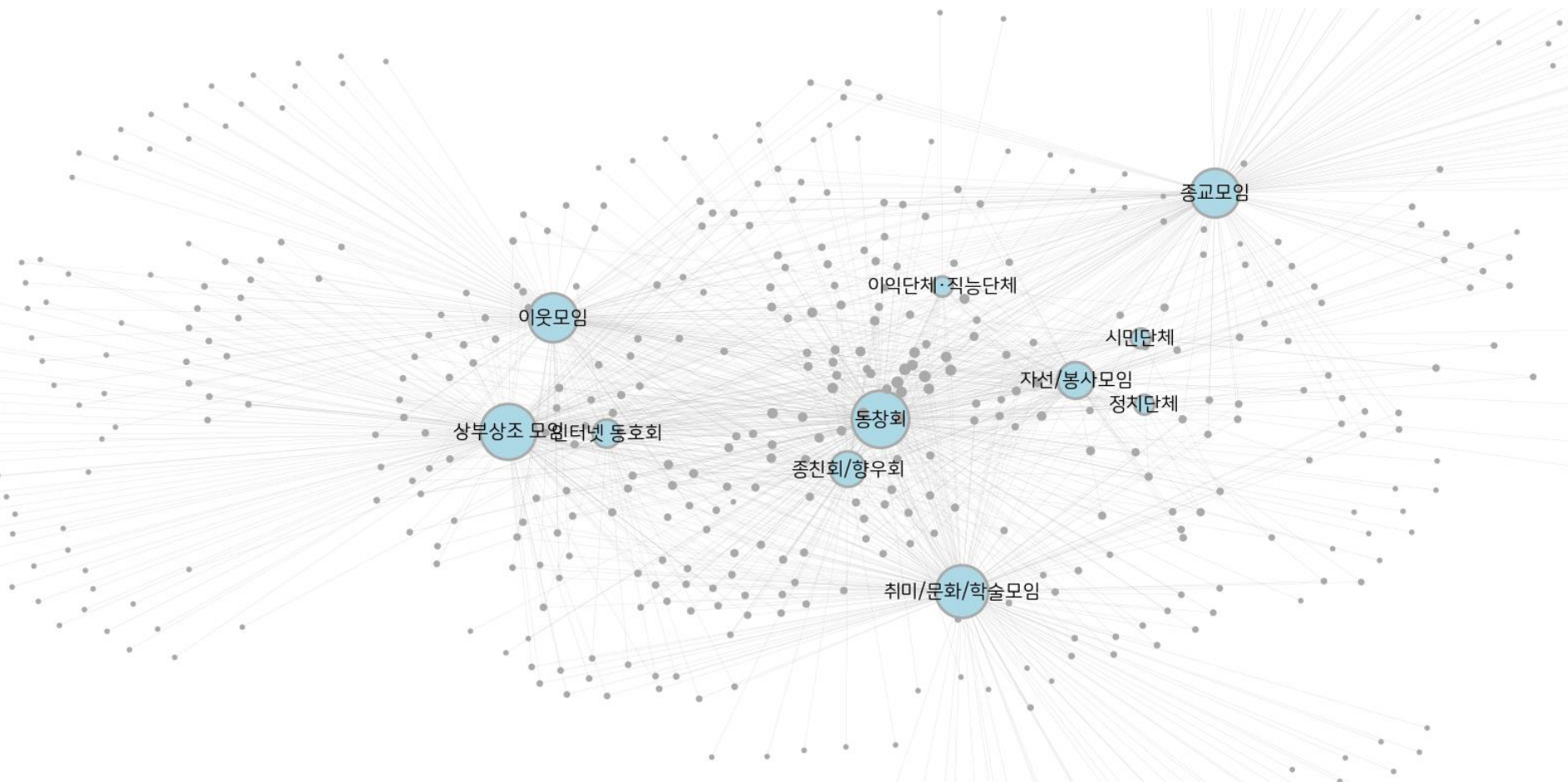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향우회	128	12.7
동창회	258	25.4
취미/문화/학술모임	174	17.1
상부상조 모임	239	23.5
정당이나 정치단체	25	2.5
시민단체	26	2.6
이익단체 및 직능단체	11	1.1
자선/봉사모임	54	5.3
인터넷 동호회	77	7.7
이웃모임	124	12.3
종교모임	144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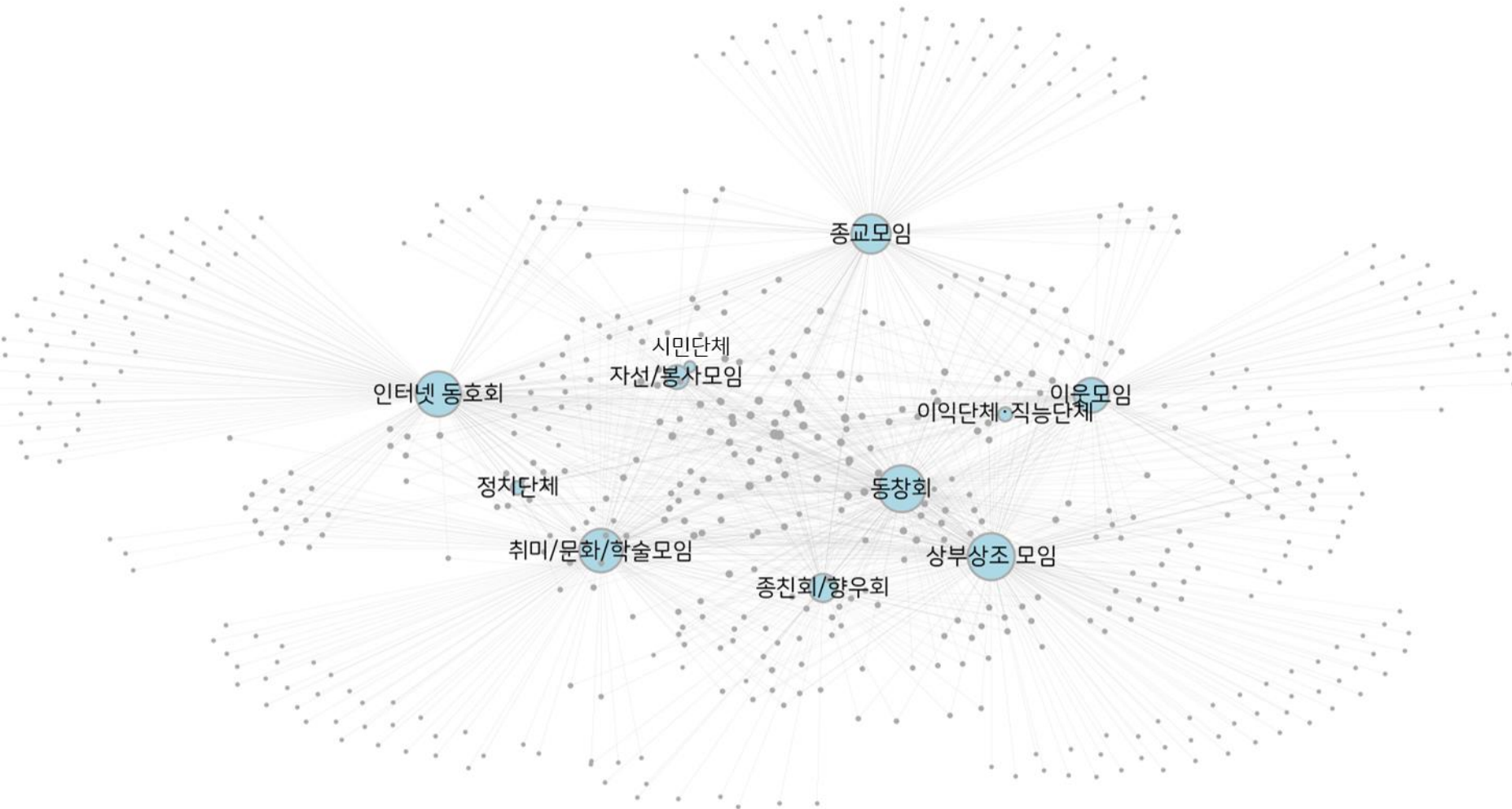
# 2015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활발하게 참여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향우회	81	8.1
동창회	211	21.0
취미/문화/학술모임	179	17.8
상부상조 모임	201	20.0
정당이나 정치단체	25	2.5
시민단체	25	2.5
이익단체 및 직능단체	26	2.6
자선/봉사모임	86	8.6
인터넷 동호회	51	5.1
이웃모임	154	15.3
종교모임	153	15.2



# 2020년 결사체 참여 연결망: 활발하게 참여

자발적 결사체	N	%
종친회/향우회	74	7.4
동창회	206	20.5
취미/문화/학술모임	177	17.7
상부상조 모임	207	20.6
정당이나 정치단체	17	1.7
시민단체	11	1.1
이익단체 및 직능단체	18	1.8
자선/봉사모임	53	5.3
인터넷 동호회	191	19.0
이웃모임	113	11.3
종교모임	144	14.4





감사합니다!